

복현타작(他作) :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남기다

복현타작 4

우리마을 그림집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복현1동 주민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곳에서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순서

- 008 들어가며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
복현타작 길잡이 현숙경
- 010 내 얼굴
자화상과 복현타작 4행시
- 044 우리 마을 그리기
- 068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아카이빙 전시회
복현 RE:CORD 展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보경 팀장
- 080 복현1동 피란민촌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복현 72〉 영상 상영회,
피란민촌의 숨겨진 이야기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보경 팀장
- 088 '예술로(路) 대구' 3년을 되돌아보며
복현1동 피란민촌의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소망하다
참여예술인 권영세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

몇 해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같은 해에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는데,
그 영화의 주제곡이 극장에 있는 내내 나를 울렸다.

*기억해 줘. 지금은 떠나가지만
기억해 줘. 제발 혼자 울지 마*

영화는 다정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읊어주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억은 이렇게 힘이 세다.

2020년, 복현1동 피란민촌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마을은 세월의 무게를 업고 스러져가고 있었지만
눈부신 정으로 가득했다.
그 안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주민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2024년, 이제 이곳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모두 가깝거나 먼 이웃 동네로 이주했으며
텅 빈 마을도 변신을 위해 단단한 갑옷을 두르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피란민촌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부르고, 만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붙잡고 있다.

복현타작은 마을 주민들과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한
기억 선물 종합세트다.
단권으로 제작하려 했던 책이 벌써 네 권째라니,
이 마을에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가 책에 눌러담은 기억들이
오래오래 많은 이들의 가슴에 전해지길 바래본다.

**복현1동을 사랑하는
복현타작 길잡이 현숙경**



내얼굴

자화상과 복원타작 4행시



복현동 살 때 좋았다.
현재 사는 데도 좋긴 좋으나 옛날 생각이 자꾸 난다.
타지에 가니까 낮도 설고, 길도 설고,
내 본데만 생각이 난다.
작별하기엔 아직 아쉽다.

- 한영자 -





허영숙 作

복 받은 동네네
현재의 생활을
타인에게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작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 허영숙 -

복현동은 한 50년 살았는데 좋았다.
현재도 좋다.
타지에 가도 좋다.
작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 이말순 -



이말순 作



손삼익 作

복현동이란 이름이
현재도 좋지만
타향이 되지 않도록
작심하고 바라본다.

- 손삼익 -

복현동의 옛 모습을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잊히기 전에
타인들의 삶을 기본 삼아
작품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미래와 현재의 삶과 모든 심정을
글로써 만들어 내고 있다.

- 강옥희 -



강옥희 作



강순덕 作

복현동 피란민촌
현재는 잊어지는구나
타인이 아닌 원주민이 오세요
작은 아파트지만 정이 넘치는 사람들...

- 강순덕 -

복현타작 시작 때 도망가려 했는데
현숙경 작가님과 함께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같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품 함께 잘 만들어 좋은 결과물 남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전미희 -



전미희 作



김은윤 作

복현동의 과거의 이야기들과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타인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작품이 되었다네!

- 김은윤 -

복작복작 정이 넘치던 복현동 피란민촌
현재는 발길이 뜸해져버린 골목
타임머신을
작동시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 정보경 -



정보경 作

복원타작 他作



현숙경 作

복을 받을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네.
타지역에 간 것처럼 가차워도 먼 것 같네요.
작은 인정도 나누며 살던 때가 그리워지네.

- 이순자 -



복자야!
현재 어딴노?
타지에 갔나?
작작 다니라.

- 박승연 -

북받은 동네 복현동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타인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 신예숙 -











우리 마을

그리기

복현동에서

- 이정민

처음 복현동에 이사를 와서 정말 막막했었는데
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다정하고 친절하고
고마운 이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복현동은 복 받은 마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이사를 나와 효목동에 살고 있지만 자꾸만 생각이 난다.
가고 싶고, 복현 주민들이 보고 싶고 해서 자주 오지만
어쩌면 복현동에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복현동이 그림다.



최서현 作



이말순 작

복현타작

- 김은윤

어느새
네 번째 복현타작
같이 울고 웃으며
복현동을 담는다.

기억을 길어올려
시를 쓰고
그리움을 나눈다.

오랜 세월 머물렀던 삶의 흔적을
복현타작에 남긴다.

이웃들이 다시 한 마을에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갈 그날을 기다린다.

내가 살던 집

- 한영자

50년 넘게 같이 한 곳
아들 하나, 딸 넷, 그리고 우리 영감!
삼시 세끼 한 상에서 밥도 먹고
방 두 칸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준 고마운 집
날 행복하게 한 집

이제는 낯선 곳에서 그림기만 한 그 집
새롭게 옷 갈아입고 다시 찾아갈 내 집!
그날을 기다립니다.



조민정 作

5월이 지나고 4월이 오면 좋겠다

- 정보경

어릴 적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이날.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이
오직 나를 위해 오롯이 시간을 보내주시던
소중한 하루.

서른이 넘은 지금은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어버이날.
회사생활로 바빠 자주 뵈지 못했던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하루.

5월이 지나고
4월이 오면 좋겠다.
다시 5월이 찾아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손삼익 作



이순자 作

여전히 운동선수

- 전미희

초등학교 시절 핸드볼 선수

중학교 시절 탁구 선수

고등학교 시절 사격 선수

땀 냄새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만둔 운동선수

운동가면 집에 안 오는 남편 미워

나도 배워보자 동호인 배드민턴 선수

20대 팔팔하던 그 새댁 30년째 배드민턴

55세 머리 희끗 그 아지매 여전히 운동선수

열린 대문 사이로

- 강순덕

넓은 좁은 길
녹슨 철대문
삐걱거리는 문짝

빛바랜 벽지와 장판
세월 따라 늙어버린 우리집

열린 대문 사이로
서로 마주치는 눈빛
서로 나눠 먹는 음식
정이 넘치는 복현동 주민



김은윤 作



권영순 作



나~

- 최은주

나~

음~

생각해봅니다~

나를요~

슬퍼요~

기뻐요~

나는 행복합니다.

불면증 치료

- 조민정

어제는 잠을 못 잤네
피곤해도 잠이 안 와
똥글똥글 구르다 날 섰네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를 왔네
꾸벅꾸벅 자꾸만 잘 자네
역시 불면증 치료는 강의 참가가 제일일세



김주환 作



허영숙 作

고령 나들이

- 허영숙

공기 많은 하늘과 풍경
내 마음도 많아지는구나
골목마다 동네에서 나를 반기듯
하하 마음이 편하고 좋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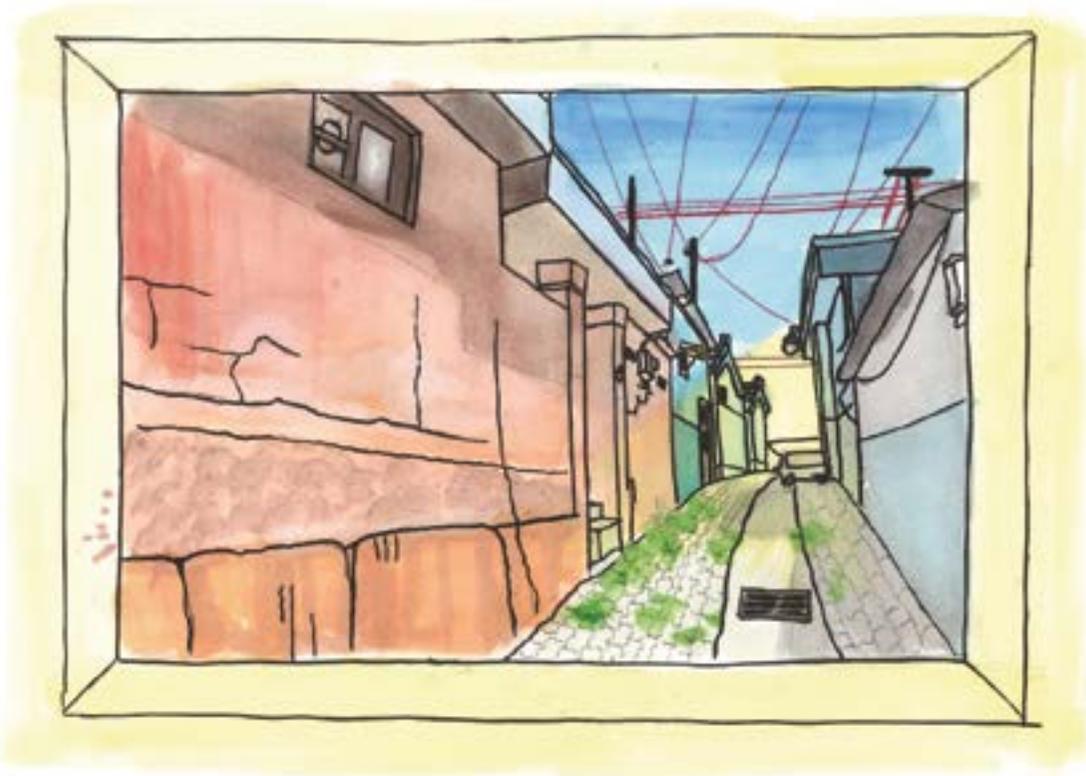
고령 나들이

- 강옥희

차량을 타고 지나다보니
소나무 분재의 솔송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보구나



전미희 作



정보경 作

한잔 두잔

- 김승남

녹색 동동주 한잔 두잔
흰색 막걸리 한잔 두잔
여 고기 남았다 안주해라
볶어지는 얼굴들



복현 RE:CORD展

2023.11.1(수) - 11.5(월) 10:00 - 18:00 (관람료 없음 입장 무료)
2023.11.3(수) 오후 3시 입장 무료 (관람료 없음)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복현 RE:CORD展

2023.11.1(수) - 11.5(월) 10:00 - 18:00 (관람료 없음 입장 무료)
2023.11.3(수) 오후 3시 입장 무료 (관람료 없음)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복현 RE:CORD展

2023.11.1(수) - 11.5(월) 10:00 - 18:00 (관람료 없음 입장 무료)
2023.11.3(수) 오후 3시 입장 무료 (관람료 없음)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복현 RE:CORD展

2023.11.1(수) - 11.5(월) 10:00 - 18:00 (관람료 없음 입장 무료)
2023.11.3(수) 오후 3시 입장 무료 (관람료 없음)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복현 RE:CORD展

2023.11.1(수) - 11.5(월) 10:00 - 18:00 (관람료 없음 입장 무료)
2023.11.3(수) 오후 3시 입장 무료 (관람료 없음)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복현 RE:CORD展

2023.11.1(수) - 11.5(월) 10:00 - 18:00 (관람료 없음 입장 무료)
2023.11.3(수) 오후 3시 입장 무료 (관람료 없음)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아카이빙 전시회
복현 RE:CORD展

2023년 11월 1일 - 5일
 복현 장미 사랑방



2023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복현 장미 사랑방에서 열린 '복현레코드전'은 복현1동 마을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마을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아카이빙 전시 형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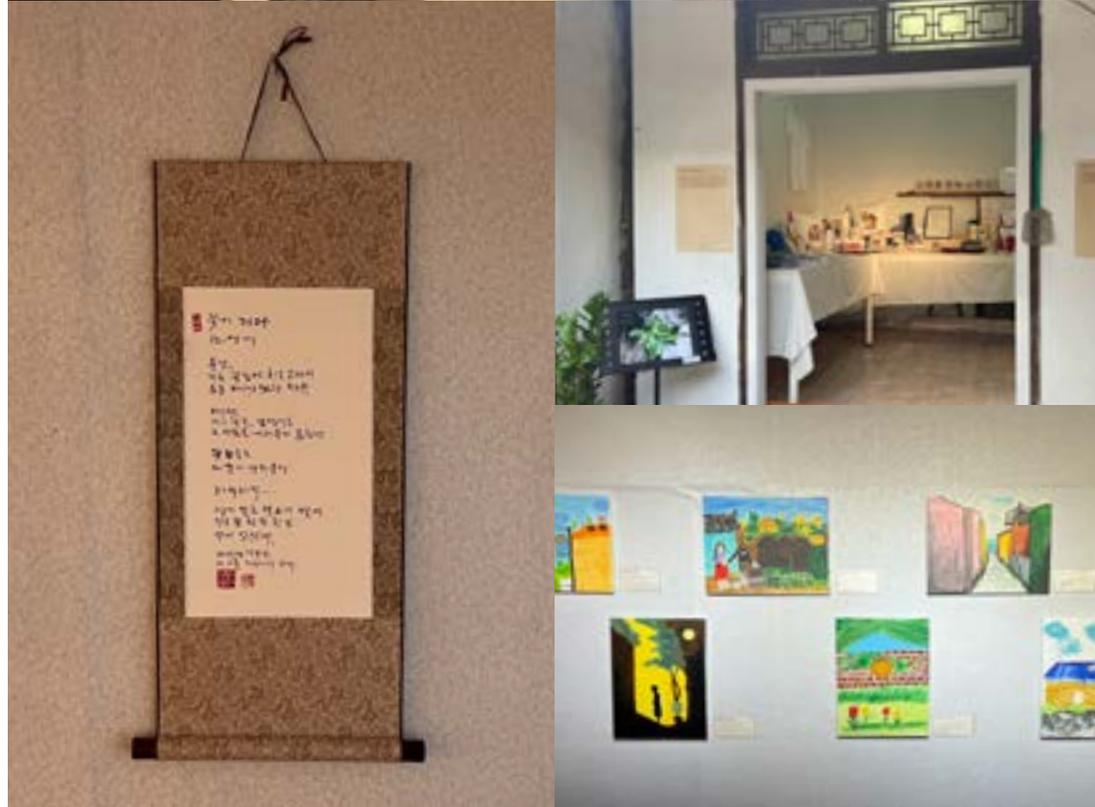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지난 3년간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 기획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며 제작한 작품과, 예술인들이 예술적 시각과 마을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복현1동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좁은 골목길 속 오래된 한옥집에서 펼쳐진 피란민촌에 대한 기록물 그리고 아카이빙 콘텐츠 전시를 통해 마을의 오래된 분위기와 정서를 엿볼 수 있었다.

*“피란민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 되는 것”*

이번 전시 작품들은 거점공간인 '복잡소'의 마을전시관에서 계속해서 전시되고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 피란민촌이 사라지더라도 그곳에서 계속될 삶의 이야기들과 맞닿아있는 듯하다. 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 공간은 사라지지만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오래도록 남겨질 것이다.

글.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보경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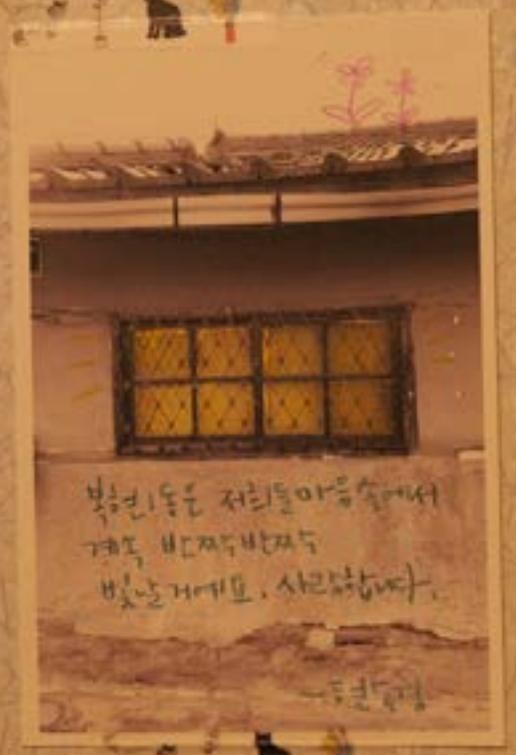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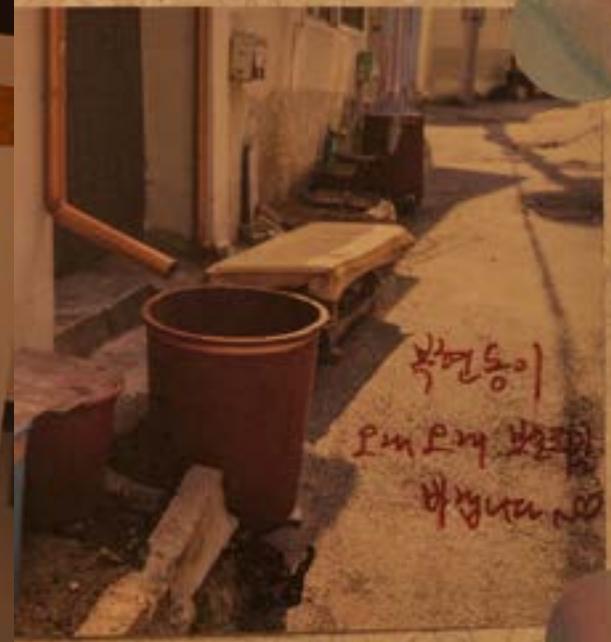




기억은 작작어방두
아는 고대할생과, 순포인생이
고대할 생애는 공기. 다들 그러고
생애의 했던 그 평범중의 기억하고, 기록하는,
귀찮은 생애는 기록하는,
비장하는 시간. 복원마을

복원마을
피란민촌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노역자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마을 발전을 위해선
젊은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복원 1동 주민으로서 소망해봅니다.
- 피란민촌 주민





북면 (동 72번지)
디자인홍리 상계전
3리전, 나쁜 뒤동아
법은 시인이었습니.
3리전도 함께한
예술인들의
생황이
이 세에 끝까지
남아 있을 것임
내 예술인 여러분

나 나가 좋아
귀여운
내 몸이 안 좋아서
사라질까 봐 걱정
"남 나가 좋아!"
가슴에
바른 그 말
"귀여운이 줄"
그 말이 들리
여러분이
남아 있을 것임
남아 있을 것임

예술로 재
(2011-2023)
3리전 상계전
예술인들

정신건강, 기인전, 건강
이승희, 오영희, 박재현
박재현, 강재현
강재현!!



남 나가 좋아
귀여운
내 몸이 안 좋아서
사라질까 봐 걱정
"남 나가 좋아!"
가슴에
바른 그 말
"귀여운이 줄"
그 말이 들리
여러분이
남아 있을 것임
남아 있을 것임

정신건강, 기인전, 건강
이승희, 오영희, 박재현
박재현, 강재현
강재현!!





복현1동 내에 피란민촌이라 불리우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구들은 개개의 주소지보다는
 '복현 72번지'라는 하나의 주소지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아왔던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하나, 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지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 '복현 72' 제작 감독 박재현 -

〈복현72〉 영상 상영회, 피란민촌의 숨겨진 이야기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대구생활문화센터 2층 어울림홀에서 '〈복현72〉 영상 상영회'가 열렸다. 이 특별한 상영회는 피란민촌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실제 거주하셨던 어르신들과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상영회에서는 주거개선사업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피란민촌의 숨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영상을 통해 보여진 피란민촌의 골목길과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는 건물들은 우리에게 어르신들의 따뜻했던 추억과 옛 시절의 애환을 떠올리게 했다.

영상 속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노고와 애환이 영상을 통해 공감되면서 피란민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다가왔다.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수많은 가구들이 '복현 72번지'라는 하나의 주소에 묶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하지만 주민

들은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미소와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복현 72번지'는 단순한 주소지로 묶여있는 것을 넘어서 이웃 간의 유대로 하나가 된 따뜻한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이 재개발로 인해 흩어져 가는 것은 마치 하나의 오래된 앨범이 흩어져 사라지는 듯한 아쉬움으로 느껴졌다.

'〈복현72〉 영상 상영회'를 통해 우리는 예술의 힘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순간을 함께했다.

재개발로 인해 떠나가야만 하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가지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은 영화를 통해 담아내어졌고, 이번 상영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함께했다. 그 기억들은 마치 시간의 캡슐처럼, 이 마을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보존해나갈 것이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지게 될 복현1동 피란민촌. 하지만 피란민촌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래도록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겨지길 희망한다.

글.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보경 팀장



대구시 복구에 위치한 복현1동,
이곳에는 피란민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여러가구가 모여 만들어진 마을은
정확한 이름도 없이 하나의 주소로 기록되어 있었다.

풀이 자라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부재중.
어떤 자물쇠는 잠겨있고, 어떤 자물쇠는 열려있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골목길 너머에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다.

(중략)

어느 곳에는 사람 키만큼 높은 풀도 자라고 있었다.
골목길 너머 보이는 아파트는 아주 단단해 보였다.
이 고양이 가족도 이사를 가야만 할 것이다

고물상 할아버지는 그대로 있었다.

어느새 나뭇잎이 물들어갔다.
그리고 마을은 좀 더 위태로워 보였다.

빈집은 더 자주 보이게 되었다.
그래도 햇살은 여전히 이곳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이 집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마을과 집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갔을까?

- 다큐멘터리 <복현 72> 나레이션 중에서









북현1동 피란민촌의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소망하다

‘예술로(路) 대구’
3년을 되돌아보며

글. 참여예술인 권영세

북현1동 피란민촌은 내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로(路) 대구>의 참여예술인으로 3년 간 예술 활동을 하였던 곳이다.

첫해인 2021년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좁은 골목을 사이로 두고 올망졸망 붙어 사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던 정겨운 곳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지금은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빈집들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다. 어느 집 대문 앞 편지함에는 미처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들이 주인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오가는 발걸음이 없는 적막한 골목에는 온갖 풀들이 수북이 자라고 군데군데 쓰레기들이 흩어져 나뒹구는 모습이 마치 폐허 같기만 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지난 3년간의 참여예술인 활동을 되돌아보니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

먼저 북현1동 피란민촌을 중심에 두고 함께한 기관의 대표 센터장님과 사업 담당 팀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예술인들의 얼굴을 머리에 떠올려 본다. 그 동안 이들과 함께한 예술로(路)의 협업은 40여년 나의 문학 인생에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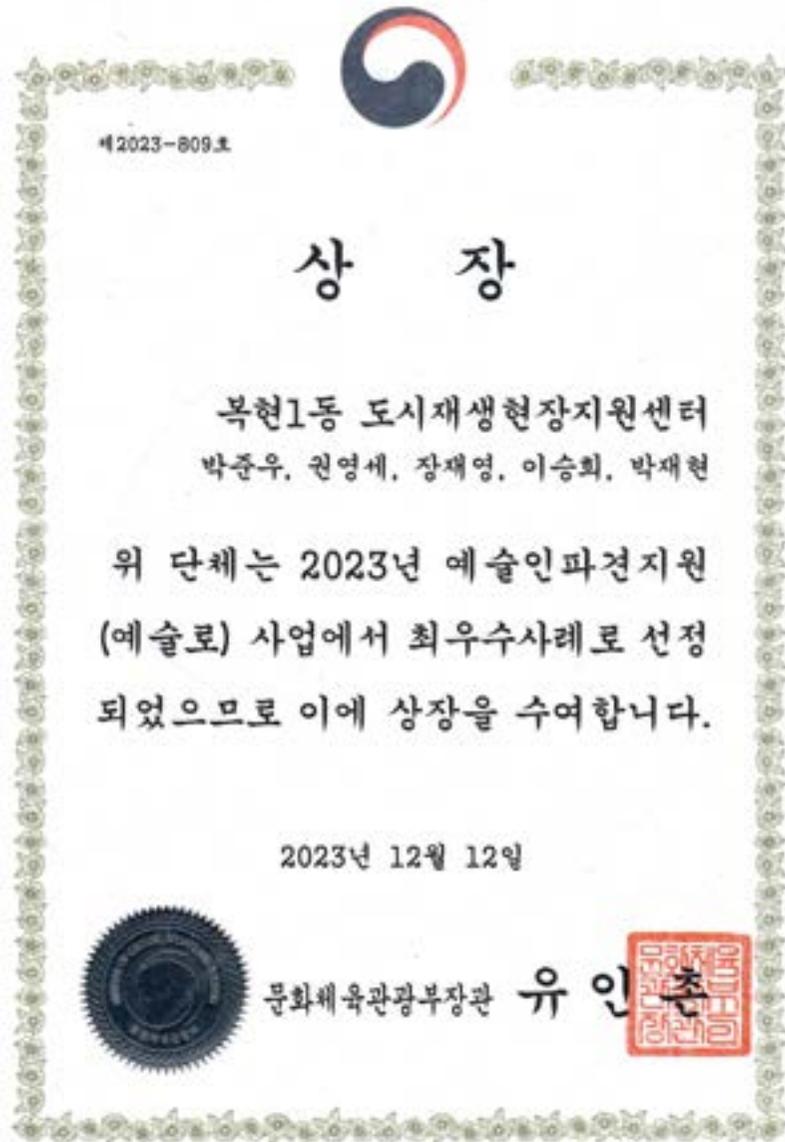
북현1동 피란민촌은 1955년에 만들어진 동네로서 ‘해방촌’, ‘피란민촌’ 등의 이름과 함께 가난한 동네의 대명사가 되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곳이 아니던가. 2020년 12월에 나온 「북현1동 피란민촌 아카이빙 사업 인문사회분야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현1동 피란민촌’은 ‘대구시의 가난한 동네 중에서 긴 역사를 가진 동네로서,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란 점에서 이곳 주민들의 생활사(史)는 곧 피란민촌 마을사(史)인 동시에 빈민사(史)로서 중요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1940년 대 말에 태어나서 6.25 동란을 겪으며 1950년대에 성장한 나는, 그 시대는 어느 곳이든 가난과 함께 힘든 삶을 영위해 왔다는 점에서 이곳 환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3년 간 연속으로 북현1동 피란민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골목>이라는 주제로 수십 편의 연작동시를 창작해 왔던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참여예술인으로서 나는, 마을 풍경과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연작 동시 창작과 이승희 미술 작가와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북현 어울림 텃밭 담벽에 시화를 제작 하였고, 현숙경 영상 감독이 주도한 <북현타작>에 참여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와 디카시 창작 지도와 국악인 오영지 명창과의 협업으로 국악 동요를 만들어 음반으로 제작하는 과업도 이루었으니 참으로 멋지고 가치 있는 예술적 경험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특히, 참여예술인 3년차인 2023년도에는 그동안 함께한 예술인들의 협업 결과물을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아카이빙 전시회 「북현 RE:CORD展」이란 주제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뜻 깊은 공개 행사에 동참한 것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일이다. 이러한 협업 사례를 높이 평가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에서는 전국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우리 북현1동 예술인 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는 큰 영광을 안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예술로(路)의 참여예술인 활동은 타 분야 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나의 문학적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북현타작 4

우리마을 그림집

길잡이

현숙경

진행

최서현, 정보경

북현타작 식구들

한영자 이순자 이말순 손삼익 박승연

강순덕 전미희 이정민 최은주 신예숙

허영숙 강옥희 조민정 김은윤 김주환

글

권영세, 정보경, 현숙경

사진

현숙경, 북카이브(<http://bokive.com>)

북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제공

디자인

올타쿠나

인쇄

대동출판인쇄

펴낸곳

올타쿠나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처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